



# 논술고사 문제지

<경제/경영학부>

『본 논술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서강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기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내지 말 것.
3.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

<문항 1: 30%, 500~600자>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 획득 목적과 제시문 [나]에서 소개한 제휴 기업간 기술 공유 활동의 목적을 비교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 기업들이 기술 공유를 하는지 설명하시오.

[가] 웬만한 지식인들도 미국 연방 헌법 제1조에 특허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영국에서 독립한 후 1788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에는 특별한 지식을 이용하여 발명한 물건에 대해서 일정 기간 국가가 그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특허법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특허 정책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역시 드물다. 링컨은 특허 지지 정책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특허를 획득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 열세였던 북군이 남군을 꺾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발명가들이 특허권을 존중하는 링컨 편에 서서 신무기를 개발해주었기 때문이다. 연발식 라이플 총, 지뢰 등 각종 신무기로 무장한 북군은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우세했던 남군을 꺾을 수 있었다.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특허법을 맨 처음 시행한 나라는 이탈리아였다. 1474년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발명자 조례'를 만들어 10년간 기술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 정보가 이탈리아에 모여들어 결국 르네상스의 발원지가 되어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다. 그 뒤 1624년에는 영국으로 이 법이 도입되어 '전매 조례'가 제정되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으로써 존 케이의 고속 직조기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비롯하여 역사적 발명품이 차례로 등장하여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되었다.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꽃피우면서 에디슨을 낳았으며 20세기의 산업사회를 주도하는 팩스 아메리카나의 세계 시스템을 낳았다. 이것이 성공한 에디슨을 낳은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로 소리를 축적하여 자본화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낸 발명가는 토마스 에디슨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원리와 이론 그리고 실험기기를 만들어낸 것은 그보다 앞서 포노트 그래프라는 장치를 만들어낸 프랑스의 인쇄 식자공 레온 스코트였다.

만약에 에디슨이 특허법이 없었던 고려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틀림없이 기술을 숨기고 사업을 하는 '청기와 장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식을 자본화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소유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가 제도적 장치에 의해 부여된 이탈리아와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청기와 장수'들이 그 지식기술 정보를 공개하여 개인과 사회와 국가 전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그 같은 법 제도가 없었던 한국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아 누구나가 청기와 장수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근대화, 산업화에 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 이어령, 「실패한 에디슨을 넘어」

[나] 최근 전자 통신 산업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자사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70년대 말 VCR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소니와 마쓰시타를 들 수 있다. 성능 측면에서 볼 때 우월한

소니의 베타방식과 상대적으로 열세인 마쓰시타의 VHS방식이 VCR 녹화시장에서 경쟁을 벌였다. 마쓰시타는 여러 기타 가전업체들 뿐만 아니라 주요 영화사들과도 제휴를 맺어 기술을 공개한 반면,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소니의 베타방식은 결국 경쟁에서 패배하여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사라졌다. 모바일 통신 시장의 경우에도, 유럽 기업들은 공동으로 왁(WAP) 기술을, 일본 NTT도 코모는 아이모드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바일 익스플로러(ME) 방식을 무선인터넷 시대의 표준 기술로 삼도록 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DMB 시장을 놓고 위성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DMB 업체와 지상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DMB를 서비스하려는 지상파 DMB 업체군 간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경우로, 삼성전자와 KT 등 상당수 국내 통신 업체들은 모바일 인터넷 시장을 개발하는 데 따르는 높은 개발 비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술 공유를 통한 제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기술 공유가 특히 전자, 통신 산업에서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문항 2: 30%, 500~600자>

제시문 [가]에서 주어진 북한의 헌법에 나타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을 간략하게 논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실패한 이유를 제시문 [나]의 관점과 [다]의 관점으로 나누어 기술하시오.

[가] 196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 환경은 남한보다 오히려 좋았다. 발전 시설, 비료 등의 중화학 공장, 지하자원 등이 남한에 비해 매우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벌어졌고, 1990년대 이후 경제력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어,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한 간에는 인구 격차 2.12배에 비해 국민 총소득은 27배,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12배로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의 헌법

20조: 생산 수단은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21조: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 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3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인민 경제는 계획 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 법칙에 따라서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나] 당신이 한 벤처기업의 사장이라고 가정하자. 당신은 게임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10억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사업의 성패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가에 달려 있다.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 확률은 80%이나 대충 일하면 60%밖에 안 된다. 이 프로그래머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프로그래머에게 이 금액만 주면 그는 대충 일한다. 열심히 일하려면 1억원은 주어야 한다.

프로그래머에게 5천만원만 지불하면 성공 확률이 60%이므로 당신이 얻는 이익은  $10\text{억원} \times 0.6 - 5\text{천만원} = 5.5\text{억원}$ 이다. 1억원을 지불하고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 확률이 80%이므로 당신이 얻는

이익은  $10\text{억원} \times 0.8 - 1\text{억원} = 7\text{억원}$ 이다. 그러므로 1억원을 주고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프로그래머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짜는 일이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래머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피곤하다. 그러므로 대충 일하고, 실패하면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됐다고 변명할 수 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일해도 실패할 확률이 20%가 되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머가 1억원을 받고 대충 일하면 당신은  $10\text{억원} \times 0.6 - 1\text{억원} = 5\text{억원}$ 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래머가 1억원을 받고 대충 일한다면 차라리 5천만원만 지불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 프로그래머에게 이 사업의 지분 25%를 주는 것이다. 지분 25%를 받을 경우, 열심히 일하면 프로그래머는  $10\text{억원} \times 0.8 \times 0.25 = 2\text{억원}$ 을 얻는데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대한 보상 1억원을 빼고도 추가적으로 1억원을 더 얻는다. 대충 일하면  $10\text{억원} \times 0.6 \times 0.25 = 1.5\text{억원}$ 을 얻는데, 대충 일할 때 얻는 보상 5천만원을 빼고도 역시 추가적으로 1억원을 더 얻는다. 이 때 프로그래머는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한다(프로그래머의 지분이 25%보다 약간만 커도 프로그래머는 열심히 일한다). 지분 25%를 프로그래머에게 주고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일할 경우, 당신은  $10\text{억원} \times 0.8 \times 0.75 = 6\text{억원}$ 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원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당신과 프로그래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 딕시트·네일버프,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다]** 갑순과 병순이 둘 만의 의료보험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의료보험은 일단 둘이 일정액의 기금을 만들고, 의료비가 필요할 때마다 이 기금에서 전액을 인출해서 지급한 후, 다음 달에 그 의료비 지출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를 따지지 않고 지출액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 기금을 채워 넣는 방식이라고 하자. 즉 갑순은 질병이 없었으나 병순이 감기로 1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일단 기금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후에 갑순과 병순이 각각 5만원씩 내서 기금을 원상 복귀시키는 방식이다.

어느 날 갑순이 산통을 느껴서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에 가보니 병순도 분만을 하기 위해 병원에 와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둘 다 별 이상 없이 순산일 것 같으니 5만원만 내고 자연분만을 해도 되겠지만, 혹시 아주 작은 확률로 난산이 될 수도 있으니 불안하면 50만원을 주고 제왕절개를 하겠냐고 물었다. 갑순과 병순은 자연분만은 10만원까지 주고라도 할 생각이 있으나, 35만원 이상을 주고 제왕절개를 할 생각은 없다. 이 때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가치와 비용을 따져보면 자연분만에서 두 산모가 느끼는 가치는 (자신의 지불용의) -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므로  $10\text{만원} - 5\text{만원} = 5\text{만원}$ 이 되고 제왕절개는  $35\text{만원} - 50\text{만원} = -15\text{만원}$ 이 된다. 따라서 갑순과 병순은 자연분만을 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 제왕절개는 과도한 진료행위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때 갑순과 병순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니 그것이 바로 의료보험이다. 자연분만은 5만원이 들지만 의료보험 처리하면 결국 자신의 부담액은 2만 5천원이며, 제왕절개는 50만원의 비용을 의료보험처리하면 자신은 25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손익계산을 해보면 자연분만은  $10\text{만원} - 2\text{만 } 5\text{천원} = 7\text{만 } 5\text{천원}$ 이 되고 제왕절개는  $35\text{만원} - 25\text{만원} = 10\text{만원}$ 이므로 갑순과 병순은 마음을 바꾸어 제왕절개를 하게 된다.

- 박 찬화·한 순구, 『인생을 바꾸는 게임의 법칙』

<문항 3: 40%, 1200~1400자>

제시문 [가]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한 다음, [나]와 [다]를 참고하여 ‘현대사회의 법과 시민적 삶’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가] 크레온:** 우리를 지켜 주는 것은 조국 땅이며, 조국이 무사히 항해해야만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갈 것이요. 따라서 나는 시민들에게 안전 대신 파멸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작정이며, 조국의 적을 나의 친구로 여기지도 않을 것이요. 이것이 내가 이 나라의 위대함을 지키는 원칙이요. 이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선포한 것이 오이디푸스 왕의 아들들에 관한 것이요. 조국을 위하여 이름 높은 군인으로서 훌륭하게 싸우다 죽은 에테오클레스에게는 무덤을 만들어 주고 가장 고귀하게 죽은 자들에게 합당한 예식을 갖추어 보답하려는 것이요. 그러나 그의 형제인 폴뤼네이케스는 추방에서 돌아와 조국 땅과 신전을 모조리 불사르고 동포의 피를 마시고 나머지는 노예로 삼고자 했소이다. 그러니 그는 물어주어선 안되고 아무도 애도해서도 안되며, 메마른 땅에 버려진 채, 누가 보기에든 끔찍하게 새나 개들이 뜯어 먹도록 내버려 두라고 시민들에게 영을 내렸소. 이것이 나의 뜻이요.

...중략...

**크레온:**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포고가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안티고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크레온:** 그런데도 감히 그 법을 어겼단 말이나?

**안티고네:** 네. 그 포고를 나에게 내린 이는 제우스가 아니었으며, 하계(下界)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시지는 않았기 때문이지요. 나는 또 그대의 명령이 신들의 불문율보다 강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그 불문율들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있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서 그 불문율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중략...

**하이몬:** 아버지, 신들께서는 인간들에게 이성을 심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온갖 재산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은 제 타고난 임무입니다. 아버지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일반 시민은 아버지의 귀에 거슬릴 만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 소녀를 위하여 도시가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어둠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죄 없는 그녀가 영광스런 행위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야 하다니! 날고기를 먹는 개떼나 새들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오빠의 시체를 묻은 그녀야말로 황금 같은 명예를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소문이 어둠 속에서 은밀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략... 아버지 말씀만 옳고 다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자기만이 현명하고 말과 정신에 있어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막상 알고 보면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나]** 한 인간의 의무가 어떤 악을 근절하는 데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는 그밖에도 다른 일들이 있는 것이며 그것들을 추구할 온당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그 악과 관계를 끊을 의무가 있으며, 비록 더 이상 그 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그 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중략...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마찰의 일부분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라. 모르긴 하지만 그 기계는 매끄럽게 닳아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닳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반대의 마찰이 되도록 하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극력 비난하는 해악에게 자신을 빌려주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중략...

국가가 개인을 보다 커다란 독립된 힘으로 보고 국가의 권력과 권위는 이러한 개인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걸 맞는 대접을 개인에게 해줄 때까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화된 국가는 나올 수 없다.

- 헨리 데이빗드 소로우, 『시민의 불복종』

**[다]** 국민이란 한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을 말한다. 만약 왜 어떤 사람이 타인과 더불어 일정한 국가에 속하는가를 묻는다면 그가 타인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일정한 강제질서에 복종하기 때문이라는 기준 외에는 달리 기준을 찾을 수 없다. 언어나 인종, 종교 또는 세계관이 서로 다르고 계층간의 대립 및 기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체로 묶어 주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법적 구속의 문제를 제쳐 둔 상태에서, 한 국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시켜 주는 그 어떤 종류의 정신적 상호작용을 제시하기란 특히 불가능하다. ...중략...

어떤 사람이 국가의 일원인지의 여부는 심리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이다. 국민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통일체는 다름 아닌, 동일한 법질서에 의해 규율된다는 사실에서 인식될 수 있다. 국민이란 국가법질서의 인적 적용범위이다.

- 한스 켈젠, 『순수법학』